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 고용허가제 개선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었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이어지는 대사 간담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송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듣고, 협력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드리며, 외국인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과 포용의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외국인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이태진 (044-202-7158)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지연 (052-714-8541)
		담당자	차 장	공진아 (052-714-8550)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사님과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선 땅 한국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외국인노동자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사업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용허가제로 맺어진 **글로벌 협력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노동존중’의 고용허가제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11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소중한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17개국 노동자들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땀과 노력, 인내와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를 고양시키는 모든 노동은
존엄성과 중요성을 지닌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처럼,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국적도 다릅니다.
하지만, 국경은 지도를 나눌 수 있어도,
사람의 존엄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타국의 손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꿈꾸는 이웃이자 **동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과 포용의 일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자 **한분 한분** **따뜻한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차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인원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예방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언어장벽이나 정보부족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노동자들이 낯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고충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일한다는 것은,
곧 같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공장의 한켠에서,
뜨거운 논밭의 끝자락에서,
낯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진실되게, 더욱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2

EPS 콘퍼런스 행사계획

- ☐ (일시·장소) 2025. 8. 6. (수) 10:00~16:00, 서울 신라호텔
- ☐ (참석자)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국, 사업장 노사
 - (고용노동부) 장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등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제인력본부장, 외국인력국장 등
 - (송출국) 17개 송출국 주한 대사·노무관 등
 - (사업장 노사)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노사 포상대상자
- ☐ (내용) 고용허가제 송출국과의 고용 노동분야 협력체계 강화
 - 고용허가제 기조 강연, 중소기업·외국인근로자 상생 우수 사례 시상 및 발표, 화합행사, 송출국가 현안 논의
- ☐ 세부 일정

시간계획	추진 일정	언론공개
10:00~10:10	▪ 개회, 내빈소개	공개
10:10~10:15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환영사	
10:15~10:20	▪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씀	
10:20~10:35	▪ 고용노동부 기조강연(담당 국장)	비공개
10:35~11:10	▪ 장관상 수여식(최우수 노사 각 1점) * 수여식 후 최우수 수상자 우수사례 발표	
11:10~11:30	▪ 화합행사(대형 캘리그래피)	
11:30~11:40	▪ 단체사진 촬영	
11:40~13:00	▪ 오찬	
13:30~15:40	▪ 대사 간담회	
15:40~16:00	▪ 송별 인사(기념품 증정)	